"자기는 다스리고 타인에겐 베풀어라"

혜산 스님(익산 대용화사 주지)

젊게 사는 비결은 기도와 정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일만시켜 도망

포교 성공하려면 스님들 相내지 말아야

황금빛 물결 일렁이는 가을 들녘 사이로, 굽이굽이를 물어물어 익산 대용화사를 찾았다. 익산은 과거 삼한시대 마한 지역이다. 대용화사가 있는 금마면은 마한에서도 중심지였다. 금마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안승의 보덕국과 후백제 견훤의 왕궁이 있던 곳으로 멀리 미륵산 중턱으로 사자암이 보인다.

물 맑고 고요하기로 소문난 금마저수지를 지나니 야트막한 산자락에 익산 대용화사가 보였다. 도량 마당에서 울력하던 스님이 손을 멈추고 객을 맞는다. "어서오시오. 늙은 중이 뭔 꺼리가 된다고. 먼 길 오셨소."

명절날 손자를 맞는 할아버지 같은 혜산 스님(71)의 미소는 용화산 자락에 자리해 금마저수지를 굽어보는 대용화사의 지기처럼 포근했다. 고희를 넘긴 세월을 스님은 어디로 흘려보냈을까? 우리 사는 색계와 달리 욕계의 하루는 길다던데. 사왕천이 50여 년, 도리천이 100여 년, 야마천이 200여 년, 도솔천이 400여 년. 스님의 용화세계는 수미산 어디 있어 세월을 멈췄을까?

"거시기 젊었을 때 정근 좀 했재. 목탁 한번 잡으면 2~3시간은 기본이었당께. 거시기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했당께. 시방은 늙어서 그리는 못혀부려." 걸죽한 호남 사투리로 혜산 스님의 대답을 들었다. 하루하루를 젊게 사는 스님의 비결은 기도와 정진이었다.

혜산 스님은 고창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에서 1938년 출생했다. 지금 선운사 대중처소 자리가 스님이 출생한 고모댁 자리다. 스님의 속가 고모부도 장성 백양사 스님이었다. 스님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선운사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다. 선운사 대중스님들을 시봉하며 한문 등을 지도 받았다. 9살에 <천자문>, 10살에 <명심보감>을 배운 스님은 일본 강점기에 서당이 폐쇄되자 소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고등학교까지 마치자 지중한 불연은 서슴없이 혜산 스님을 출가로 이끌었다.

"어려서 절에서 학교 다니며 대강백 한영 스님과 은사 운기 스님으로부터 경전을 배웠어. 그때 스님들이 '너는 꼭 스님이 돼 선운사를 크게 중창시켜라' 고 말씀하셨지. 어려서 들은 스님들 말씀에 당연히 출가해야 하는 줄 알고 출가했지."

혜산 스님은 경전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경전만 보고 글공부만 하고 싶던 스님에게 운기 스님은 글공부보다 밭 가는 일과 논일을 더 시켰다.

"항상 선을 닦고 교를 생각하라는 분이, 일만 시키고 공부는 안시켰어. 선운사 토지가 넓은데 스님별로 구역까지 할당해서 풀 베라 할 정도였으니 꾀도 부릴 수 없었지. 참다못해 도반과 함께 만행을 떠났지. 짬지게 공부해보겠다고 떠난 것이 파주 보광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4·19를 만났지."

혜산 스님은 그때부터 문수사, 망월사, 약수사, 호압사 등에서 수행정진 했다. 막상 객지에서 소임 사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스님은 기도 정진만큼은 쉬지 않았다. 대처승과 분규 중이던 서울 신림동 약수사를 되찾아 조계종단에 등록하기도 했다.

"삼보정재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변호사 비용은 땅으로 주기로 했고.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승소했지만 한달 만에 약수사를 떠났지.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해."

분규 사찰을 되찾았을 경우 창건주에 준하는 지위가 보장됐지만 스님은 훌훌 털어 버리고 떠났다.

약수사를 떠난 혜산 스님은 기도 정진을 위해 자주 찾던 미륵사 사자암 주지를 역임했다. 여전히 기도 정진에 힘썼다. 스님은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폐허에 가깝던 사자암을 복원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청와대를 찾기도 했다. 산림청으로 편입됐던 사자암 땅도 되찾았다. 혜산 스님은 초하루 법회를 정례화하고, 방생하는 법을 알리는 등 전북지역 불교신행의 기틀도 확립했다. 포교 방편과는 별도로 신도가 크게 늘어났다. 스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주지가 법당에 서서 관음정근을 2시간 이상씩 하니 신도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신도들이 정근을 수시간씩 해보니 힘든데,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자연히 신도들이 스님을 공경하게 됐지. 출가자는 재가자에 모범을 보여야해."

스님은 "스님들이 상(相)을 내느라 신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주는 경우를 많이 봤다. 불교가 포교에 성공하려면 절대 상을 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신도를 몰고 다니는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혜산 스님은 "출가자가 남방불교를 배워 와서 포교에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자암 주지를 맡은 지 12년이 되어가자 삼보정재를 되찾고 불사를 이룬 혜산 스님을 공경하던 신도들이 점차 성화하기 시작했다. 무슨 까닭일까? "늙어 바랑 놓을 곳이라도 있어야지, 스님은 물색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성화였다.

"주지직을 놓아도 사자암 옆에 있어달라고 신도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등 떠밀리듯 대용화사 불사를 했어. 불사하기 싫어서 다니는 터마다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로 미뤘어. 20여 곳도 더 다녔지. 더 이상 미루기도 난처할 찰나 지금 대용화사 터를 만났어."

1988년 대용화사 불사 후에도 스님의 정진은 계속됐다. 1994년 종단개혁이 끝나자 이번에는 문중스님들이 혜산 스님에게 성화해 선운사 주지에 선출됐다. 조계종 산중총회 주지 1호였다. 형식은 민주적 선출이나 문중의 큰어른 혜산 스님의 정진력과 덕망으로 추대된 것과 진배없었다.

선운사 주지 부임 후 스님은 전북지역 양대 문중인 운기 스님과 남곡 스님 문중의 화합을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 지금도 규약은 지켜지고 있다. 선운사 주지임기 4년 동안 사중 살림을 헛으로 쓰지 않고 공부하듯 짬지게 쓴 덕분에 선운사 살림은 늘었고, 포교·수행·교학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중흥불사의 기틀을 다졌다. 선운사 중흥을 위해 진력한 혜산 스님을 두고 "승가의 화합과 균형을 이뤘다. 원융살림을 펼쳤다"고 대중들은 칭송했다. 지금도 스님에게는 '대중화합'과 '원융살림'이라는 말이 호처럼 따라다닌다.

삶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수처작주(隨處作主)'를 강조했다. "거짓 없이 살아야 합니다. 주인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가는 곳, 머무는 곳,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돼야 합니다."

혜산 스님은 주인 되는 방법으로 기도 정진을 권했다. "관음 기도나 신장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 혜안이 밝아지지. 혜안이 밝아지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0월 24일 금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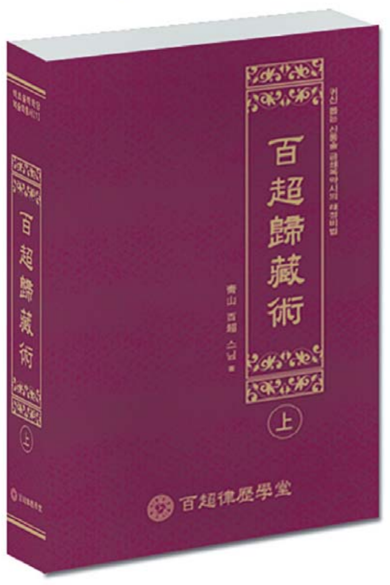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